

# 1890년대 중엽이후 조선을 둘러싼 로일간의 각축전을 통해 본 일제의 지배권확립책동

오 순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조선과 만주는 로, 일 각축전의 중요한 마당이었다.》  
(《김일성전집》 제100권 287페이지)

일본침략자들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날로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출로의 하나를 조선에 대한 침략에서 찾았다.

1873년 11월 조선봉건왕조내에서 사대투항주의적인 명성황후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투항주의적인 개국통상을 표방해 나서자 일제는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조선봉건왕조에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침략의 발판을 닦았다.

당시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된 것은 짜리로씨야의 남하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책동이였다.

당시 짜리로씨야는 동북아시아에로의 세력권을 확장하는데서 유리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의 지정학적위치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를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고 획책하였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짜리로씨야는 1884년 윤 5월 15일에 조선봉건왕조에 13개 조항으로 된 《조로조약》과 3개 조항으로 된 《부속통상규정》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로 짜리로씨야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을수 있었으며 그후 《아관파천》을 계기로 조선봉건왕조내에 친로적인 정권을 조작하고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닦아나갔다.

친로정권의 조작으로 완전한 수세에 빠진 일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에서 짜

리로씨야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협상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서 로일간의 세력균형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교활한 대로외교공세를 벌렸다.

1890년대 중엽이후 제국주의열강들은 조선봉건왕조내의 친청파, 친일파, 친미파, 친로파 등 사대당파들을 하나씩 조종하고 부추기면서 저들의 세력권확보를 위한 각축전을 벌렸다. 특히 청일전쟁이후 짜리로씨야가 프랑스, 도이쉴란드와 동맹하여 료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짜리로씨야와의 대립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한편 조선봉건왕조내의 통치배들속에서는 《3국간섭》을 계기로 짜리로씨야에 대한 환상이 더 커져 철저한 친청파로 행세하던자들까지도 친로파로 변하여 친일파와 대립해나섰다.

일제는 불리한 정세를 돌려세우기 위해 1895년 8월 20일 친로파의 우두머리이며 조선봉건왕조의 국정을 다스리고있던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이후 조선봉건왕조의 국왕 고종은 짜리로씨야에 대한 환상이 더 커져 일제와 친일파세력에 등을 돌려대고 짜리로씨야와 친로파의 각본에 따라 로씨야공사관에 옮겨앉게 되였다.

일제는 조성된 사태를 리용하여 어떻게 하나 조선봉건왕조내에서 짜리로씨야세력과의 세력균형을 보장할 목적밑에 국왕 고종을 환궁시켜 저들의 손아귀에 장악하기 위한 외교교섭을 벌렸다.

1896년 2월 18일 주조 일본공사 고무라

쥬파로는 일본외무대신대리 사이온지 김 모찌에게 한 보고에서 《아관파천》이후 조선봉건왕조내에서 반일감정이 계속 높아 가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당시의 형세와 조선봉건왕조의 북쪽으로부터 오는 보고에 의해 판단해보건대 로일관계는 현하 극히 절박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조선봉건왕조를 각국의 보호하에 둘것인가 혹은 로씨야와 함께 협의해볼것인가, 어떻게 되었든 로씨야와 조선봉건왕조문제를 결정지어야 될것은 잠시도 미룰수 없는 긴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로일협상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일제는 이 제의에 따라 1896년 2월 25일에 주로, 주조 일본공사들에게 대로협상안을 지시하였다. 이 협상안에 의하면 첫째로, 로씨야정부가 주조 로씨야공사에게 지시하여 조선봉건왕조의 국왕이 왕궁에 돌아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것이며 둘째로, 조선봉건왕조에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왕 고종에게 권고하도록 주조 량국공사에게 지시하는것이며 셋째로, 조선봉건왕조에서 정권을 장악하는자가 그 정치적적수에게 잔인한 형벌을 가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는데 량국공사에게 지시하여 이를 금지하도록 조선봉건왕조에 충고하는것이였다.

일제가 내세운 대로협상안은 국왕 고종의 환궁으로 조선봉건왕조내에서의 짜리로씨야의 세력권우세를 약화시키고 조선봉건왕조의 인사관리권도 로일이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두 나라가 함께 진행하며 짜리로씨야의 힘을 빌어 친로정권에 의해 친일파들이 대대적으로 숙청되는것을 제지시켜 저들의 침략실현의 앞잡이인 친일파들을 적극 보호해주자는데 그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었다.

당시 짜리로씨야는 《3국간섭》이후 청나라령토를 통과하는 씨비리횡단철도를 부

설하여 저들의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 더 나아가서 아시아침략정책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꾀하고있었다. 따라서 짜리로씨야의 모든 초점이 씨비리철도부설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는 만주지방 침략강화에 집중되어있었고 조선에서 일본과의 충돌은 시기상조였다.

바로 이러한 때 일제의 대로협상안이 그대로 반영된 각서가 주일 로씨야공사 히트로브의 손을 거쳐 짜리로씨야정부에 전달되였다.

결국 일제의 각본에 따라 짜리로씨야는 공통된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1896년 5월 14일 4개 조로 된 《웨베르-고무라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의 체결로 일제는 조선봉건왕조정부내에서의 짜리로씨야와의 세력균형보장문제에서 한걸음 전진하게 되였다.

일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896년 5월 짜리로씨야에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진행되게 된것을 계기로 군부우두머리인 야마가따 아리도모를 대표로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조선봉건왕조내에서의 짜리로씨야의 독점적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외교공세를 벌렸다.

\* 1896년 5월 24일 짜리로씨야 외무대신 로바노브와 야마가따사이에 진행된 모스크바회담에서 일제는 대동강-원산선인 39° 선으로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의 리익을 공동분할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조선의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한 제국주의렬강들의 날강도적인 제안이였다.

일제는 두차례의 회담을 더 진행한데 기초하여 1896년 6월 9일 《로바노브-야마가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체결로 일제는 짜리로씨야로 하여금 단독으로 조선봉건왕조의 재정을 장악하지 못하며 군대조직도 할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약화되고있던 저들의 세력권을 되찾

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또한 조선봉건왕조내의 친일세력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아관파천》사건을 계기로 격화된 일제와 짜리로씨야와의 대립은 국왕 고종의 환궁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해졌다.

일제는 《아관파천》과 관련하여 내외의 여론이 높아진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친일파들을 국왕 고종의 환궁문제 해결에 적극 인입시켰다.

일제의 적극적인 뒤반침속에서 친일파들은 국왕 고종을 로씨야공사관에서 빼내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다. 일제는 두가지 방향에서 타산하였는데 하나는 봉건정부의 원로대신들을 설복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 국왕을 저들의 수중에 장악하는 것이었다.

친일파들은 1896년 10월 24일 일본육군대장 고마쓰노미야 아끼히토친황이 우리 나라에 기여든데 힘을 얻고 국왕을 로씨야공사관에서 빼내기 위한 모의를 진행하였다. 친일파들은 189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여러차례에 걸쳐 모의를 벌리고 친로내각의 대신들을 처단하고 국왕의 환궁실현을 위해 《외국인 자객 50명을 채용》하고 위조칙령을 만들어 각국 공사관에 국왕의 환궁을 통지하는 동시에 외국군대의 보호를 요청하여 행동날자를 11월 19일로 한다는 것 등 저들의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짰다.((《고종실록》 권34 건양2년 2월 1일)

친일파들은 그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획실현이 불가능해지자 11월 20일에 다시 행동계획을 짜면서 12월에 독립협회에서 연회를 차릴 때 내부대신 박정양, 학부협판 김홍륙과 기타 각 부의 협판들을 연회석상에서 살해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김

락영의 집에 모두 모이기로 확정하였다.

친일파들이 면밀히 작성하였던 국왕 고종을 환궁시켜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친일파와 친로파간의 정치적대립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친일파들은 친로파들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국왕의 환궁을 공포하고 경운궁으로 환궁시킨 이후에도 친로파와의 권력쟁탈싸움을 맹렬히 벌렸다.

국왕의 환궁이후 당시 친로파안의 실제적권력자인 김홍륙과 그 무리들은 짜리로씨야에 더욱 아부굴종하면서 1897년 10월 알렉세예브를 봉건정부의 재정고문으로 끌어들이는데 이어 1898년 2월에는 절영도를 조차지로 짜리로씨야에 넘겨준 것도 모자라 3월에는 한성에 《한로은행》까지 설치하였다. 국왕의 환궁이후 심해진 친로파들의 전횡에 반발하여 정부내의 수구세력은 1897년 4월말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사이에 두차례나 친로파들을 살해하기 위한 비밀계획을 꾸몄다.

친로정권안에서 벌어진 두차례의 테로음모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이것은 친일파들이 국왕 고종을 폐위시키기 위한 흉계를 꾸미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친일파들은 국왕을 설복하여 황태자의 《대리청정》을 선포하고 친일정권을 조작할 흉계밑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즉 수구세력의 동정을 얻어 국왕의 폐위와 황태자의 《대리청정》을 교섭하며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 국왕에게 압력을 가할 것과 그것마저 실패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과 15일에 경운궁에서 열리는 제사에 참가하는 관리들의 하인으로 가장하고 시위대병영안에 들어가 기회를 보아 행동하기로 하였다. 이 비밀계획은 그후 안경수의 실책으로 군부대신 민영휘에게 루설되어 실패하였으나 친일파들의 신변안전은 일제에 의해 철저히 담보되었다. 일본공사 가

또는 일본인거류지에 숨어있는 두명의 친일파들을 넘겨줄데 대한 친로파들의 제의를 일축하고 일본으로 빼돌렸다. 일본에 도망친 안경수와 윤효정은 그후 이미 3년전에 망명해있던 박영효일파와 결탁하여 다시금 친로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흉계를 꾸미었다. 일제는 국내에서 만민공동회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조건에서 그 상층세력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것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정변목적을 달성하려고 꾀하였다. 8월말에 한성의 룡산부두에 기여든 윤효정은 일본공사관놈들의 보호밑에 일본인집에 잠입해있다가 9월 7일 일본순사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다시 일본에도주하였다.

국왕 고종의 환궁이후 벌어진 친일파들의 련이은 테로음모와 정변시도행위는 우리 나라를 둘러싼 일제와 짜리로씨야세력사이의 침략행위의 산물이였다.

친일파들은 그후 봉건정부안에서 벌어진 고종독살미수사건을 계기로 친로정권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진 틈을 리용하여 친로파우두머리들을 테로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박영효일파는 1899년 여름부터 테로에

쓸 폭약을 제조한데 기초하여 6월초 친로파의 우두머리인 궁내부 재정감독 리용익, 중추원의장 조병식, 참정 신기선, 이전 대신 리종건, 의주군수 방한덕 등 친로파로 지목되는 사람이라면 현직 및 전직대신들은 물론 그 관계자들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테로하였다. 기록에 참정 신기선이 친로파재상들의 피해상황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 책임을 경무사 원우상에게 들썩우면서 3일이내로 범인들을 잡아내라고 지시한 것은 친일파들의 테로행위가 친로파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되였는가를 보여준다. (《고종실록》 권39 광무3년 6월 10일)

일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속에 더욱 격렬해진 친일파와 친로파간의 대결은 그후 일본침략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후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한 로일전쟁을 계기로 정계에서 밀려났던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였다.

이처럼 일제는 19세기말 조선봉건왕조를 저들의 독점적지배밑에 넣기 위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1905년부터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식민지적착취를 강요하였다.